

작가 없는 글

손혜주

‘작가 없는 글’이라는 것을 처음 떠올리게 된 것은 인사미술공간의 종료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리딩 프로그램에서였다. 참여자에게 사전 배부된 『볼』 세 권 중, 4호 ‘정의’ 편에 실린 「최후의 만찬」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¹⁾ 이 글은 스웨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듀오 매트스 비게르트와 라스 버그스트롬(Mats Bigert & Lars Bergström)이 사형 제도를 주제로 제작한 동명의 필름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 2005)²⁾를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으로, 저널에는 인터뷰 내용, 내레이션, 자막, 타임코드, 인물의 이름, 직위 등 필름의 시청각적 요소들이 텍스트 형식으로 재편집되어 수록되어 있다.

『볼』이 ‘국내 시각예술 비평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국내외 비평을 폭넓게 소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후의 만찬」은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 이 글은 통상적인 비평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저널에 수록된 다른 글들과도 성격상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비평을 학술적 영역 외부에서 생산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는 저널로서 『볼』이 지닌 실험성을 드러내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해당 글에 관해 깊이 논의하기는 어려웠다.

이 짧은 리뷰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다른 글들과 구별되는 지점을 ‘작가 없는 글’이라는 조건으로 정리하고, 이 예외적 사례를 『볼』 내부의 조건으로 받아들였을 때, 매체가 전달할 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후의 만찬」의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것이 독립적인 작업이 아니라 파편적인 작업이라는 점이다. 원작인 <최후의 만찬>은 미국, 독일, 필리핀 등 여러 국가를 배경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볼』에 함께 실린 제작 후기에 따르면 감독들은 사형 제도가 서로 다른 지역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수감자에게 ‘마지막 만찬’을 제공하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저널에는 국가의 아이러니, 즉 죽기 직전야 마지막 요구를 들어준다는 아이러니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이를 중심으로 일부 인터뷰와 내레이션이 발췌되어 재편집되었다. 이미지 없이 지면에 옮겨진 이 파편들은 형식적으로도 불안전하며 이러한 불안전성은 『볼』에 실린 연구자, 평론가, 기획자 등의 완결된 텍스트들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해진다.

한편으로 「최후의 만찬」은 명확한 필자가 없다는 점에서도 다른 작가의 글들과도 차이가 있다. 『볼』에는 이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자들이 필자로 참여했고 이들은 텍스트 기반의 글쓰기뿐 아니라 드로잉, 만화, 콜라주, 그래픽 등 각자의 매체 언어를 통해 저널을 작가적 실험의 장으로 활용

1) 매트스 비게르트·라스 버그스트롬, 「최후의 만찬」, 『저널 볼 4호: 정의』, 2006년, 139-150.

2) 동명의 필름과 글을 구분하기 위하여 필름은 **홀화살괄호**(< >), 글은 **홀낫표**(「 」)로 표기하였다.

했다. 이에 반해 「최후의 만찬」은 새로운 창작이 아닌 기존 작업의 재편집, 2차적 구성에 가까우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최후의 만찬〉이 준거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법이다. 실제로 작가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작업 소개들은 다큐멘터리 형식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강조한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상, 조각 설치,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혼합한 형식을 취한다.” (….) “다큐멘터리적 깊이를 더 하며, 작가 특유의 스타일을 완성한다...”³⁾. 이러한 형식 위에서 「최후의 만찬」은 온전한 작가가 없는 것으로 읽히며,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각자는 다만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갖춘 채 발화할 뿐이다. 사형수의 위장에 남아 있는 음식을 읊는 요리사나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담담히 토로하는 집행인, 교도소 관장의 말들은 감독들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은 죽음이라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으면서도, 그 전달 방식은 인터뷰와 관찰에 기반한 투박하고 경험적인 언어를 간직한 채 저널에 수록되었다. ‘쇠고기 8파운드’, ‘생선 6파운드’처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들이 갖는 현장감은 제도 비평과 매체적 실험이 중심을 이루는 『볼』의 다른 글들이 개념과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식과는 결을 달리한다. 또한 이 글은 청탁에 의해 쓰인 원고가 아니라, 기획 과정에서 외부 작업을 발췌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자체로 내용과 형식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볼』이라는 저널의 형식 자체에 균열을 만들며, 비평 저널로서의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런 불완전하고 또 불안정한 텍스트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저널이라는 형식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서까지 남겨진 이 파편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글이 야기하는 효과를 통해 ‘작가 없는 글’이라는 모호한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썼듯 『볼』에서 ‘작가 없는 글’의 효과를 도식화하자면 내용적으로는 일상의 목소리를 삽입하는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비평 저널이라는 자기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 속에서, 작가와 매체, 기관은 맞닿을 수 있었다.

비게르트와 버그스트롬이 제작 후기에서 밝혔듯, 영화 제작자로서 그들은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우리(작가)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란 보장이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긴장은 ‘작가 없는 글’의 자리를 마련한 『볼』이나 제도권 내의 대안공간으로서 인사미술공간이 간직하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남은 것은 ‘작가 없는 글이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대에서, 비게르트와 버그스트롬의 제작 후기로 남은 한 통찰은 현실의 익숙함과 직접성에 관한 의미심장한 문구로 읽힌다: “체계의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⁴⁾

3) BIGERT&BERGSTRÖM, <https://bigertbergstrom.com/works/the-last-supper>

4) 매트스 비게르트·라그 버그스트롬, 「〈최후의 만찬〉 제작 후기」, 같은 책, 151-175.

저자 소개

손혜주(시각예술 작가)는 융합예술학을 전공했으며 영상 미디어를 중심으로 제작과 기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언어가 사회에 매개되는 동시에 이를 구성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 언어에 관한 제작 현장 연구를 통해 오늘날 사회를 추동하는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을 가늠하고자 한다.

현재는 지도를 중심으로 공간에 대한 상상을 가시화하는 시각 매체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를 동시대 사회 및 정치적 지형과 연결짓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도 제작 현장에서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지표>(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2022), 「지표II 초고」(아르코미술관 공간열림, 2023)를 발표했다.